



제목	Israel under Babylon and Persi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1975. 7. 24.
저자	Peter R. Ackroyd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374
ISBN 또는 ISSN	978-0198369172

내용 요약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시드기야(Zedekiah)왕을 비롯한 유대인이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 유수와 기원전 538년에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에 의해 풀려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근동지역 문화, 종교, 예술 등의 교류와 전파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바빌론 유수기 동안 유대인은 고난과 고통으로 민족일치를 강화했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여 유대교를 정립하였고, 이 기간 동안 경전을 정리하여 구약 성서의 기초를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진보하고 화려한 문화를 체험하였다.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절대적인 신을 설정하였고, 그 신이 인간들을 심판한다는 개념으로 인간사에 윤리성을 도입하였다. 이 교리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여 그 때까지도 현세 지향적이었던 유대교를 신진화시켰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한 후에도 유대인 중 일부는 바빌론에 남아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이 책은 구약성경을 토대로 키루스 실린더와 나보니두스왕의 서사시 등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놓인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조명하였고, 총 4장으로 구성되어 기원전 587년 당시 바빌론 유수 사건의 배경과 이해관계, 페르시아에 의해 해방, 해방 후 유다의 종교, 법, 생활방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